

		골목길 번호	공 란
지명	동대문구 청량리동(00통)	용도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
가로명	홍릉로 - 27길, 제기로-21길, 23길, 경동시장로-9길, 15길, 고산자로-9길, 9나길, 40길, 42길, 46길, 48길		
형성시기	1950년대 (조선시대 이전, 일제 강점기, 70년대 등)	형성방식	계획적 (자연적, 기타(내용), 등)
지형	평지 (구릉지, 계단 등)	골목형태	격자형 (가지형, 그물형, 기타 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기동 노후건축물 4,309동 중 3,660동(84.9%)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분류된다. • 제기동은 개량한옥에서 부흥주택,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맨션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시주거공간 흔적이 남아 있는 살아있는 노천 건축박물관이다. • 제기동은 1950년대 말에 서민형 집단 주거지로 지어진 부흥주택 단지과 1970년대 초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흥파팬션이 온전히 남아있다. • 2015년, 경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도로인 경동시장로 재정비(경동시장로 통행 개선 등 교통안전선 설치 • 현재 경동시장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서민들의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한 명소 		
자원요소	활동성	주거, 생활 (상업, 산업, 등) - 복수로 선택 가능	
	편의성 (Ame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기로 : 격자 형태의 골목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번지수를 유의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길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저마다의 집 특성이 화분 등으로 표현되어 나름의 조화를 이룬다. 골목 사이사이 같은 크기의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며 평지이고 발전 가능성이 꽤 있는 듯하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동네의 규칙과 질서가 인상적이었으며 집마다의 간격이 좁았다. 하지만 그만큼 이웃 간의 정이 느껴졌으며 치안만 잘 유지된다면 골목사이의 담 허물기도 제안하고 싶다. • 경동시장로 : 예상보다 상권이 많이 발달한 골목이었다. 따라서 골목자체의 개선보다는 질서와 균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더욱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전통 한옥과 결합하여 아직 전통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골목이 있었다.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이름 유래 : 제기로는 1984년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감안하여 망우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능로와 분리되어 오늘에 이른다. 도로가 지나는 제기동에서 도로명이 유래하며, 제기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왕들이 선농단에서 매년 춘분과 추분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자리라는 뜻의 제터에서 유래한다. • 경동시장 : 6·25 전쟁 이후 서울 사람들의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 북부 일원과 강원도 일대의 농민들이 생산·채취해 오는 농산물과 채소 및 임산물들이 옛 성동역과 청량리역을 통하여 몰려들었다. 이것들의 집산지로서의 공간이 필요하였고 또 그 반입과 판매를 감당하고자 전토를 매립한 공지에서부터 장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시장이 형성된 것이 시작이다. 	
민원현황	(현재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주민 참여의지	높음, 보통, 낮음		
자치구 정책방향	주거성, 생활 편의성, 역사성, 기타(작성)		

위치도



① 조경 조성

- 골목 사이사이 몇 군데의 집마다 초록색의 작은 조경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다. 마치 그 집을 알려주고 대표한다는듯한 느낌이 들었고 골목 사이의 틈이 좁았지만 이러한 조경 환경 때문에 그 작은 틈에서의 주민들의 노력과 집마다의 조화로우움을 느낄 수 있었다.



② 틈

- 골목의 틈은 매우 비좁았다. 기껏해야 2명 정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틈이었는데 그 틈에서 주민들은 서로간의 교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틈과 틈이 준비하는 제기로의 골목은 어디가 어느 골목인지 헷갈리지만 담을 허물거나 틈을 합친다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③ 한옥의 보존

- 경동시장의 골목에서 우리는 옛 한옥을 찾을 수 있었다. 한 골목의 5~6채의 집들만이 지붕, 현관 등에 한옥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상권이 점점 발달하면서 한옥 또한 그 모양이 변형되어 부분적인 모습만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았다.

